논어 15편 위령공 16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群居終日，言不及義，好行小慧，難矣哉！」

독음 · 자왈 군거종일 언불급의 호행소혜 난의재

쉬운 풀이(요약) · 하루 종일 모여 의로움은 말하지 않고 잔재주만 즐기면 나아지기 어렵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群 무리 군 군 / 居 살 거 거

終 끝낼 종 종 / 日 날 일 일 / 言 말씀 언 언 / 不 아닐 불

及 미칠 급 급 / 義 옳을 의 의 / 好 좋을 호 / 行 다닐 행 행

小 작을 소 소 / 慧 슬기로울 혜 혜 / 難 어려울 난 난 / 矣 어조사 의

哉 비로소 재 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